

1월23일(월)/히12:18~29 (1)

제목: 누가 새 예루살렘 시민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18절에서 21절까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일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 율법을 받은 시내산은 불이 타 오르고 검은 구름과 암흑에 싸인 채 폭풍이 일고 비록 짐승이라도 이 산에 닿기만 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던 무서웠던 곳이었다(18~20절). 이곳에서 모세도 너무나 무서워서 떨었다(21절). 이 시내산은 절대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에게 굳게 닫혀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든다. 그러나 22절부터 시내산과 대조되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기다리는 새 예루살렘이 나온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소망하는 이곳은 천사들의 즐거운 축제가 있고, 먼저 간 믿음의 선조들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자기 소임을 당하고 생을 마친 크리스천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다(22~23절). 시내산과 새 예루살렘은 다른 곳이다. 새예루살렘에는 아벨의 피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속죄의 피가 있다(24절). 아벨이 그의 형에게 살해당해서 땅으로 스며든 피는 복수를 요구하는 피였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화해의 길을 여는 열었던 피였다. 누가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에 적심 받은 자이다.

1월24일(화)/히12:18~29 (2)

제목: 더 깊은 사랑은 그 때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25절) 이라고 말 한 것은 모세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이 받았던 징벌을 말하는 것이다. 사실 모세는 인간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전달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의 명령을 가소롭게 여긴 사람들은 결코 벌을 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역한 자는 더 엄한 벌을 받지 않을 수 없다(25절). 모세의 율법의 불완전한 명령을 배반한 자가 벌을 받았다면 복음의 완전한 명령을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더 엄한 벌을 받는다.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26절)는 율법이 주어질 때 땅이 진동하였음을 가리키는 말이다(출19:18). 그러나 새 예루살렘이 열리기 전 이 세상에 묻이 닫히는 종말 때가 되면 진동 정도가 아니고 하늘까지 흔들리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27절). 그러나 그 때 딱 한가지 안 사라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다(28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굳게 맺어져 있다면 우주가 진동하여 송두리째 날아가는 바로 그 날에 하나님과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된다.

1월25일(수)/히13:1~19 (1)

제목: 대접하면 천사가 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마치면서 몇가지 지침을 주고 있다. 이 지침은 첫째, 초대교회 때 외부로부터 신앙의 위협을 받고 도피 중인 크리스천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잘 돌봐 주는 것이었다(2~3절). 둘째, 순결이었다. 결혼을 경시하는 금욕주의자의 말에 현혹당하지 하고 결혼 생활을 귀히 여겨야 했다(4절). 배우자에게 성적인 봉사를 성실히 다 하는 것도 크리스천의 의무였다(4절). 셋째, 항상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다(5절).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늘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는가?(6절). 넷째, 참 지도자를 기억하고 본받는 것이다(7절).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온다. 그것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2절)는 말이다. 대접한 나그네 중에 실지로 천사가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위험에 처한 나그네를 선대한 그 자가 그것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유익이나 행운을 독차지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남을 대접하면 그도 대접받는다는 철칙은 실생활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눅6:31).

1월26일(목)/히13:1~19 (2)

제목: 지도자가 불편하면 ...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지침들을 제시한다. 첫째, 유대인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고 또한 안 먹고 하는 것으로써 하나님의 은총 받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은총은 음식과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온다는 것이다(9절). 둘째, 크리스천은 이 세상이 예수님을 대접한 것과 같은 취급을 당한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대제사장은 동물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고기는 ‘진영 밖’에서 태워버렸다(11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도 ‘성문 밖’에서 치욕받으셨는데 크리스천은 예수님이 겪으신 치욕을 같이 짊어져야 한다(12~13절). 크리스천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치욕을 겁내서 안된다. 셋째, 항상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것이다(15절). 찬미는 입술의 열매이다. 넷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을 행하는 것과 가진 것을 항상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다(16절).. 다섯째,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다(17절). 이것은 지도자의 권력의식이나 특권의식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볼 때 무한한 기쁨을 누린다. 지도자가 탄식하면 그 지도를 받는 성도들에게 손해가 된다(17절). 지도자를 기쁘게 하는 것도 성도의 의무이다.

1월27일(금)/히13:20~25

제목: 사명을 피하는 것은 핑계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종결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먼저 예수님을 선한목자로 소개한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20절) 이라고 썼다. 매우 드문 표현이다. 바울도 전혀 쓰지 않았고 히브리서에서도 처음 나오는 표현이다. 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목자!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다” (20절) 라고 썼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아울러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21절). 그리고 이 편지는 최후의 인사로 끝맺는다(22~24절). 왜 디모테의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디모테가 예수님을 위하여 투옥되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축도로 끝을 맺는다(25절). 21절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동시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 동시에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신다. 그러므로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다면 사명을 회피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